

제 목	국 문	향정신성 질환제와 고관절 골절 발생위험도간의 관련성에 관한 환자-대조군연구		
	영 문	A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tropic drugs and the risk of hip fracture in post-menopausal wome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병주, 앤디 스테가치스* 서울의대, 워싱턴대학교*		
	영 문	Byung-Joo Park, Andy Stergachis* <i>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Washington*</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박 병 주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2월			

1. 연구 목적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서 향정신성 질환제의 복용과 고관절 골절의 발생위험도 증가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미국 북서부인 시애틀지역에 있는 보험단체인 Group Health Cooperative(GHC)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50세이상의 여성가운데, 1977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사이에 고관절 골절(ICD-9-CM 820)로 진단받았던 사람들을 환자군으로 삼고, GHC의 피보험자로 대조군 선정기준에 적합한 여성중에 연령을 짹짓기 변수로 하여 1:1로 무작위 추출하여 대조군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중심 환자-대조군연구를 수행하였다.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의무기록과 임상검사장부, 질병등록자료 등과 전산화된 GHC의 자격화일, 병원화일 및 약물화일 등으로부터 인구학적, 행태학적 변수, 자격취득과 관련된 정보, 병원이용정보, 질병력, 및 처방약물에 관한 정보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향정신성 약물의 복용에 따른 고관절 골절의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짹지은 로짓분석법(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여 crude Odds Ratio와 교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adjusted Odds Ratio를 산출하고 각각의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Window-용 PC-SAS와 EGRET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대상 기간중에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였으면서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였던 환자군은 329명이었고, 이에 짹지은 동수의 대조군을 선정하였으므로 최종 연구대상자의 수는 모두 658명이었다. 환자군의 평균연령은 75.6세로 대조군의 평균연령 74.8세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GHC에 가입한 기간이 보다 길었고, 기준일 이전 1년기간동안 입원한 기간이 더 길었으며, BMI는 더 낮았고, nursing home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신체 활동의 장애를 유발하는 조건은 더 적게 가지고 있었다. 고관절 골절의 발생 위험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변수는 연령, GHC 가입기간, 현재 음주자, 현재 흡연자, 향정신성 질환제 복용중인자, 3년이상 폐노바비탈 복용자, 및 5년이상 thiazide 복용자 등으로 나타났다. 환자군에서 고관절 골절 당시 향정신성 질환제의 복용자는 68명(20.7%)이었고, 대조군에서 기준일 당시 향정신성 질환제 복용자는 41명(12.5%)이었다. 향정신성 질환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고관절 골절의 발생 위험도는 1.9배 증가하였으며, 그 95% 신뢰구간은 1.2부터 2.9사이로 추정되었다.

4. 고찰

본 연구에 의하여 50세이후 여성에서 향정신성 질환제의 복용이 고관절 골절의 발생 위험도를 2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향정신성 질환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에 고관절 골절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향정신성 질환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고관절 고절이 유발되는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